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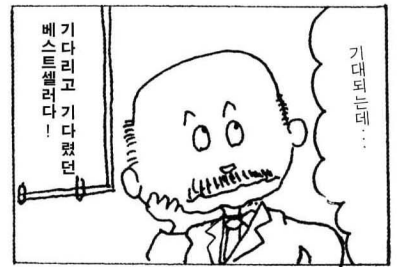
군부대에 도서관을 만들자.

‘진중도서관건립국민운동’ 조직개편과 함께 활동 강화
 군부대 내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인 ‘진중도서관건립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김재운 탐라대 교수를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활동을 더욱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민운동은 지난 4월 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진중도서관 건립을 위한 국민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공동대표 추대와 조직 및 운영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이사회 체제에서 이수성 전 국무총리, 박원순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로 추대되고 민승현 국민운동 상근 공동대표를 합쳐 모두 7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장병들의 부대 내 생활에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복무를 ‘찍는다’고 할 만큼 부대의 문화적인 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2002년도 국방비는 16조 3,640억 원으로 정부 예산의 15.5퍼센트에 이른다. 하지만 국방부가 운영하는 진중문고 예산은 10억 원으로 국방비의 0.006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는 장병들이 먹는 과일값 333억 원, 우유값 449억 원인 데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진중문고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는 21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재운 위원장은 진중도서관 건립이 군 장병들에게 독서 동기과 기회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지식, 문화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국민운동을 후원하는 일반의 참여를 적극 유도, 일반 회원들의 추대를 받은 집행위원의 숫자를 1백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운동’은 최근 서울 구치소에 문을 연 ‘보라미 도서관’까지 합쳐 총 18개를 개관하는 등 나름의 값진 성과를 얻고 있다. **김경희** 기자

book cartoon



작가 프로필
 만화가 루토우(龍登)는 1947년 전남 회양읍에서 태어났다. 대학 재학 시절 소설의 신세계를 탐하며, 특히 대중소설의 창작에 열정을 쏟았다. 졸업 후 두 차례 이신애, 마니니치신애 등의 창작영재훈련생으로 활동한 후 출판사 편집인, 출판기획, 신간출판, 비평, 번역, 강의, 기획, 주무관직을 역임했다. 현재 미주, 마포도(美斗), 박(朴), 박(朴)관각, 평이(平義)의 한문호명이다.



사진, 눈으로 확인하고 바로 다운받자!

- 출판 편집을 위해 사진이 필요하시다고요.
- 발품은 이제 그만, 앉은 자리에서 확인하고 바로 다운 받으십시오.
- 포인스는 고품상 사진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 국내 최대의 생체, 전통문화 사진 라이브러리!
- 저렴한 대여료, 장기 계약에 의한 후불제 가능.